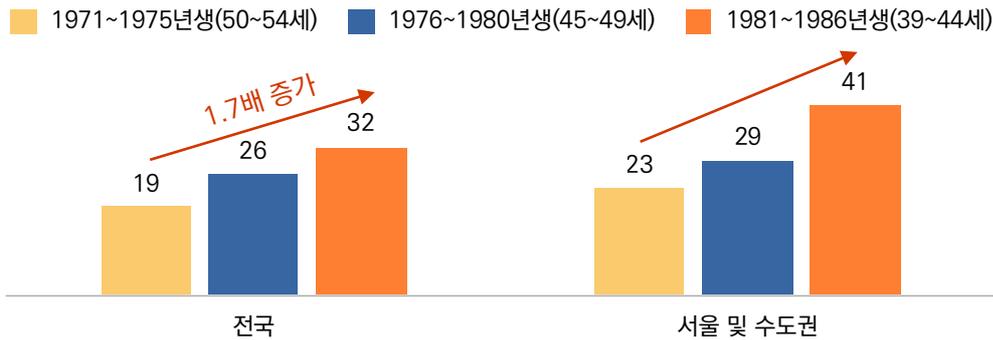




## [캥거루족 청년 실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35세 시점), 10년새 2배 가까이 증가

- 캥거루족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한다. 35세 시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을 통해 '캥거루족 청년 실태'를 살펴본다.
-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시점에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전국 기준 현재 50~54세 연령대는 19%였는데, 39~44세 연령대에서는 32%로 10살 연령대 차이로 1.7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세 시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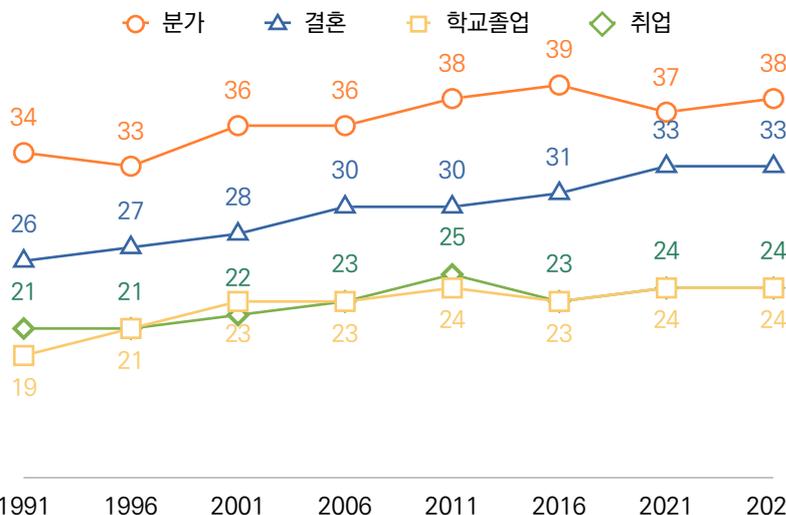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13호), 2025.01.27.

## 청년의 '졸업·취업·분가·결혼' 등 성인기 진입, 점점 더 늦어진다

- 청년들이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이행 단계로는 졸업, 취업, 분가, 결혼이 있다. 이러한 성인기 전환의 대표 지표 4가지를 중심으로, 한 세대 전인 1991년부터 2023년까지 변화를 추적해 본다.
- 그 결과, 학교 졸업 연령은 1991년 19세에서 2023년 24세로, 취업 연령은 같은 기간 21세에서 24세로 높아졌으며, 분가와 결혼 연령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늦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앞서 언급한 독립 시기의 지연, 즉 캥거루족 청년의 증가와 같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전체 성인기 전환점 추이 (1991~2023, 세)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13호), 2025.01.27.